

# 중국 산둥성의 한국종교\*

윤 용 복\*\*

- I. 들어가는 말
- II. 산둥성의 종교현황
- III. 산둥성의 한국종교
- IV. 나가는 말

## • 국문초록

산둥성은 대외 교류에 있어 지리적인 이점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역사적으로도 한국과 일본은 산둥성을 통해 많은 교류를 하였고 이것은 근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한중수교 이후 많은 한국인들이 산둥성으로 진출하였다.

근대에 한국의 개신교는 산둥성을 중심으로 최초의 해외선교를 실시하였다. 중국의 공산화 이후 이것은 단절되었고, 중국에서의 종교활동도 많은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였고, 따라서 중국에서 종교활동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인들도 이 지역에 많이 진출하여 살아가게 되었으며, 한국인들과 함께 한국의 종교도 산둥성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 산둥성에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의 한국종교가 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도교, 불교, 이슬람, 천주교, 개신교의 다섯 종교만 종교로 인정하기에 여타 다른 종교가 활동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산둥성의 한국종교 가운데 개신교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다음으로 천주교, 불교가 뒤를 잇는다. 중국에서는 교파를 인정하지 않기에 국내에서처럼 개신교들이 교파주의를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 불교의 경우 잠재적 신도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국 포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21-A00052).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강사

• 주제어

산동성, 한국 개신교, 한국 천주교, 한국 불교, 교파, 선교활동

## I. 들어가는 말

산둥성(山東省)은 대문구문화(大汶口文化)와 용산문화(龍山文化)와 같은 중국 신석기문명의 중요한 발상지 가운데 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자와 맹자를 비롯한 여러 사상가들이 활동한 지역이기도 하다. 공자로부터 비롯된 유교는 한대 이후 2천여 년 동안 중국의 중심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따라서 이 지역은 수천 년간 중국사상과 문화의 근간이 되어왔다. 19세기 후반에는 산둥지역에서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서양의 문화, 특히 기독교 문화와 중국문화가 충돌하여 일어난 것이었다.

한편 근대 이후 중국은 서구 열강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되는데, 특히 산둥을 중심으로 한 해안 지역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져 1897년 칭다오(靑島)가 독일에 할양되었고, 다음해에는 웨이하이(威海)가 영국에 할양되었다. 이후 산둥성의 대부분 지역이 독일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되지만,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일제에 점령당하기도 하였다.

산둥지역은 고대부터 한반도, 일본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통일신라시대에는 신라와 당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신라방, 신라인들의 사찰인 신라원 등이 세워지는데, 이러한 교류의 중심에는 산둥지역이 있었다. 20세기 초 한국 기독교의 최초 해외선교 지역도 산둥지방이었다. 당시 한국의 기독교는 전래된 지 수십 년에 불과해서, 아직 완전한 자립교회가 되기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둥지역에 최초로 한국인 선교사를 파견하였다. 이와 같이 이 지역은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고대부터 근대까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교류에 있어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근대 들어서는 서구인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창구역할을 하였다.

현대에 들어서도 산둥성은 대외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산둥성은 중국의 동북삼성을 제치고 한국인들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며,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다. 이 지역에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함에 따라 동북삼성에 거주하는 많은 조선족들도 산둥지역으로 이주하여 한국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이 지역에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종교들도 활동을 하게 되었다. 현재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는 개신교·가톨릭·불교 등이 있다.

산동성과 관련한 연구로는 경제적 교류나 활동, 그리고 문화교류와 관련된 역사 관련 저서나 논문들이 대부분이고 종교, 특히 산동성의 한국종교와 관련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선교와 관련한 개신교의 자료들과 연구가 일부 있을 뿐이다.<sup>1)</sup>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지역의 한국 종교에 대한 전반적 개괄과 함께 그 특성들을 고찰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산동성의 종교정책과 종교현황, 그리고 산동성의 한국종교의 진출에 대한 간단한 역사와 현재 산동성의 한국종교현황을 검토하면서 각 부분들에 대한 특성들을 논하도록 할 것이다. 산동성 한국 종교의 현황은 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필자가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한 것을 중심 내용으로 삼을 것이다.

## II. 산동성의 종교현황

### 1. 개혁개방 이후 산동성의 종교정책

산동성은 중국 동부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도의 서북쪽은 발해, 동부와 남부는 황해와 접해 있다. 성도(省都)는 공자의 고향인 취푸(曲阜)와 태산에 가까운 지난(濟南)시이며, 인구는 대략 9417만여 명(2008년 통계)이다. 성 전체는 17개 지역 시(地級市)로 나뉘어져 있고, 그 아래 31개의 현급 시(縣級市)와 41개의 시할구(市轄區), 그리고 60개의 현(縣)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참조).<sup>2)</sup> 인구의 구성을 보면 한족(漢族), 회족(回族), 만족(滿族), 장족(藏族), 조선족(朝鮮族) 등 54개의 민족이 있으며, 그 중 한족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동성에 있는 태산은 예로부터 중국인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산이다. 태산의 신 ‘태산부군(泰山府君)’은 사람의 생사를 담당하며, 사람의 혼백을 불러들여, 생명의 장단을 관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신앙을 정치에 활용한 것이 봉선의식(封禪儀式)이다. 진시황제나 한무제 등의 중국 황제들은 태산에서 봉선의식을 행

1) 개신교의 김태균 목사, 김교철 목사 등이 산동성에 관한 자료를 모아 정리하여 온라인상에 게재한 정도이다. 특히 김교철 목사는 일제 강점기에 개신교에서 산동성에 파견한 선교사들 각각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inbora.com>, <http://www.kidok.net/> 등 참조. 논문으로는 최계건, 『한국 장로교회의 중국 산동성 선교』, 『한국교회사학회지』18집(한국교회사학회, 2006)이 있다.

2) 『山東省地圖冊』, 山東省地圖出版社, 濟南(2010), 6쪽.

하였다. 또한 도교의 발달로 태산의 신은 ‘동악대제(東岳大帝)’라고 숭상되었으며, 각지에 동악묘(東岳廟)가 세워졌다. 또한 태산과 함께 칭다오의 노산(嶗山)은 도교의 명산이기도 하다.<sup>3)</sup> 태산을 중심으로 한 산둥성은 중국의 종교, 및 사상사에 있어서도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산둥성의 종교정책은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의 종교정책은 마르크스-레닌의 무신론에 주요 근원을 두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중국은 지속적으로 종교에 대한 압박 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외국의 선교사들을 모두 체포하여 본국으로 추방해버렸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는 종교적 활동을 철저히 탄압하여 모든 종교적 활동은 사라지게 되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8년 말 개최된 제11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삼중전회)에서, 중국정부는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확정하고 종교정책부문에서도 과거 강제적으로 종교문제를 처리한 것과 달리 비록 제한적 범위이기는 하지만 종교의 존재를 인정하고 허용하는 쪽으로 노선을 정하였다. 그리하여 1979년 중국공산당 내부분건인《종교정책에 관한 선전요강(關於宗教政策的宣傳提綱)》을 통해 현 단계에서는 종교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1982년의 헌법에서는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음”을 명확하게 확정하였고, 같은 해 3월에는 《아국 사회주의 시기 종교문제의 기본관점과 기본정책에 관한 통지(關於我國社會主義時期宗教問題的基本觀點和基本政策的通知, 이하 간략히 19호 문건)》를 공표하였는데,<sup>4)</sup> 이후의 종교관련 정책은 이 19호 문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표 1> 山东省 县级以上 行政区划表

省辖市	市辖区	县级市	县	비고
济南市 (省都)	市中区, 天桥区, 历下区, 槐荫区, 历城区, 长清区	章丘市	平阴县, 济阳县, 商河县	6区1市3县
青岛市	市南区, 市北区, 四方区, 李沧区, 黄岛区, 崂山区, 城阳区	胶州市, 即墨市, 平度 市, 胶南市, 莱西市		7区5市
淄博市	张店区, 临淄区, 淄川区, 博山区, 周村区,		桓台县, 高青县, 沂源县	5区3县
枣庄市	市中区, 山亭区, 台儿庄区, 峄城区, 薛城区	滕州市		5区1市

3) 우정하, 『중국 각 성(省)에 대한 연구분석(6)』, 『중국학논총』25집, 국민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2009), 21-22쪽.

4) 行政院大陸委員會編印, 『大陸宗教概況(1996年-2001年)』, 行政院大陸委員會. 臺北, 民國 91(2002), 12쪽.

东营市	东营区, 河口区		垦利县, 利津县, 广饶县	2区3县
烟台市	芝罘区, 福山区, 牟平区, 莱山区	龙口市, 莱阳市, 莱州市, 蓬莱市, 招远市, 栖霞市, 海阳市	长岛县	4区7市1县
潍坊市	潍城区, 奎文区, 坊子区, 寒亭区	青州市, 诸城市, 寿光市, 安丘市, 高密市, 昌邑市	昌乐县, 临朐县	4区6市2县
济宁市	市中区, 任城区	曲阜市, 兖州市, 邹城市	汶上县, 泗水县, 微山县, 鱼台县, 金乡县, 嘉祥县, 梁山县	2区3市7县
泰安市	泰山区, 岱岳区	新泰市, 肥城市	宁阳县, 东平县	2区2市2县
威海市	环翠区	宋成市, 文登市, 乳山市		1区3市
日照市	东港区, 岚山区		五莲县, 莒县	2区2县
莱芜市	莱城区, 钢城区			2区
临沂市	兰山区, 河东区, 罗庄区		沂南县, 沂水县, 莒南县, 临沭县, 郯城县, 苍山县, 费县, 平邑县, 蒙阴县	3区9县
德州市	德城区	乐陵市, 禹城市	陵县, 宁津县, 庆云县, 临邑县, 齐河县, 平原县, 夏津县, 武城县	1区2市8县
聊城市	东昌府区	临津市	高唐县, 茌平县, 东阿县, 阳谷县, 莘县, 冠县	1区1市6县
滨州市	滨城区		沾化县, 博兴县, 邹平县, 惠民县, 阳信县, 无棣县	1区6县
菏泽市	牡丹区		鄄城县, 郓城县, 巨野县, 成武县, 单县, 定陶县, 曹县, 东明县	1区8县

19호 문건의 전문은 내용이 많아 모두 소개하기보다 특징적인 것 몇 가지를 간추려서 소개하기로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종교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소멸되어야 할 것이지만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장기적으로 존재하며, 당의 종교정책은 문화대혁명 시기의 일시적인 파괴를 제외하면 일관되게 종교 신앙자유정책을 관철해 왔다. 종교계의 인사, 특히 종교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전종(專從) 종교인을 단결시키고 교육시켜 애국적인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케 해야 하며, 애국종교조직이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젊은 애국적인 전종 종교인을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sup>5)</sup>라고 하는 것 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종교란 언젠가 최종적으로 사라질 것이지만, 그것을 강제로 없애기보다 자연적

5) 차차석, 『불교사학 및 응용불교: 현대 중국 종교정책의 변화과정과 전망』, 『한국불교학』47집, 한국불교학회(2007), 477쪽.

으로 소멸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며, 그때까지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겠다는 것과 함께, 문화대혁명 시기 종교탄압에 대한 과오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되 그것은 애국적이고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내용 이외에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신앙의 자유도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산당원은 종교를 믿거나 종교 활동에 참가할 수 없으며, 18세 이하의 아동은 입교나 출가 등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 활동이 사회주의 제도에 반대할 수 없고, 민족단결을 해치거나 사회치안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조직에 참여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sup>6)</sup>

현재 중국 내의 종교단체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중국의 종교관련 법령은 ① 《종교사무조례》, ② 《중화인민공화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③ 《중화인민공화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실시세칙》 등이 있다. 《종교사무조례》는 2004년 11월 30일 국무원령 제426호로 공포된 것으로, 1994년 1월 31일에 공포되었던 《종교활동 장소 관리조례》를 보다 구체화시켜 종교단체의 설립·변경·취소, 그리고 종교출판물, 종교학교 설립, 종교 활동 장소, 종교 교직자, 종교의 재산, 법률적 책임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은 1994년 국무원령 제 144호로 반포된 것이다. 중국은 헌법과 형법<sup>7)</sup>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조례와 규정을 두어 종교단체의 관리를 감독하며, 외국인의 종교 활동도 이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한편《종교사무조례》를 기반으로 각 부분에 좀 더 세밀한 부분을 규정한 법령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국가 종교사무국령 제2호 《종교 활동장소 설립비준과 등기 방법(宗教活動場所設立審批和登記辦法, 2005년 4월)》, 국가종교사무국령 제3호 《종교교직자 등록 방법(宗教教職人員備案辦法, 2006년 12월)》, 국가종교사무국령 제4호 《종교 활동장소 주요교직 임직 등록 방법(宗教活動場所主要教職任職備案辦法, 2006년 12월)》, 국가종교사무국령 제5호 《티베트불교의 라마지위 전승제도

6) 行政院大陸委員會編印, 같은 책, 13쪽.

7)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6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지며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 그리고 개인이 공민에게 강제로 종교를 믿게 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 251조에서는 “국가기관의 종사자가 불법으로 공민의 종교신앙자유를 박탈하고 소수민족 풍속습관을 침범하는 것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형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강준영, 『중국 개혁개방과 종교의 부활』, 『중국학연구』24집, 중국학연구회(2003), 16쪽 참조.

관리 방법(藏傳佛教活佛轉世管理辦法, 2007년 7월)», 국가종교사무국령 제7호 《종교 활동장소의 재무 감독 관리 방법(宗教活動場所財務監督管理辦法, 2010년 1월)》<sup>8)</sup> 등이 있다. 각 법령들의 제1조에는 모두 《종교사무조례》에 근거해서 그 법들을 제정했음을 밝히고 있어 이 법령들이 《종교사무조례》에서 규정한 종교 활동장소, 종교교직자, 티베트불교의 라마 승계, 그리고 종교 재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종교활동장소의 재무 감독 관리방법》은 《종교사무조례》 이외에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민간비영리조직 회계제도》 등에 근거해서 제정하였다고 하여, 특히 종교단체의 재정, 회계 부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산동성의 별도 종교관련 법령으로는 《종교사무관리조례》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위의 법령들을 따르고 있다. 《산동성 종교사무관리조례》는 2000년 9월<sup>9)</sup>에 공포되었으며, 2004년 11월<sup>10)</sup> 다시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이 조례의 제3조에도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외국인들의 중국내 선교활동에 대한 규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산동성 종교사무관리조례》는 《국가종교사무조례》를 다소 단순화해서 제정하였다. 《국가종교사무조례》가 7개의 장으로 나뉘어서 모두 48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서, 《산동성 종교사무관리조례》는 6장 38조로 되어 있다. 《산동성 종교사무관리조례》가 《국가종교사무조례》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대외교류의 부분이다. 《국가종교사무조례》는 한 개의 조(제4조)로 간단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동성 종교사무관리조례》는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4개 조(제 26조-제 29조)에 걸쳐 대외교류를 다루고 있다.

제4조. 각 종교는 독립, 자주, 자영의 원칙을 견지하며,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 종교 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 종교 교직자는 우호와 평등의 기초 위에 대외교류를 전개한다. 기타 조직이나 개인은 대외 경제 합작이나 문화교류 활동 중에 부가적인 종교적 조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국가종교사무조례》<sup>11)</sup>)

제26조.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와 종교계인사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외국 종교계와 교류와 학술교류를 전개할 수 있다.

8) <http://www.sara.gov.cn/gb/zcfg/gz/default.htm>.

9) 行政院大陸委員會編印, 같은 책, 267-275쪽.

10) <http://www.sdmw.gov.cn/zcfg/200909/da3a45e6-8060-4fae-81f6-72b7a42cfdff.htm>.

11) <http://www.sdmw.gov.cn/zcfg/200909/58e3b470-1fb5-45e8-b794-1c1dafd4afe7.htm>

제27조.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외국종교조직과 개인의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외국조직과 개인이 제공한 종교운영수당과 전교경비를 받을 수 없다 ; 경제무역, 문화, 교육, 위생, 과학기술, 체육, 관광 등의 대외교류활동 중에 부가적인 종교적 조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28조. 종교단체와 종교계인사가 초대에 응하거나 외국을 방문하는 것, 또는 외국 종교조직의 초청, 종교계인사의 내방은 마땅히 관련 국가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9조. 본성 행정구역 내의 외국인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경내외국인종교활동관리규정》과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산동성 종교사무관리조례》<sup>12)</sup>

《국가종교사무조례》에서는 상호평등의 관계에서 외국과의 종교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산동성종교사무조례》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데, 종교교류 이외에 학술교류도 할 수 있고, 종교적 조건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외국종교조직의 기부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산동성이 대외교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산동성에는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외에 다른 조항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종교사무조례》를 부분적으로 간략히 해놓은 정도이다. 다만 2004년 새로이 변화된 내용들은 기존의 입장이 완화되거나 또는 강화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개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변화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3)</sup>

종교인 양성교육에 대하여 이전의 조례(제7조)는 반드시 종교사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지만, 바뀐 조례 제7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 양성교육을 할 때에는 반드시 종교사무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하여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와 달리 종교인 양성제도가 어느 정도 정립되었고, 종교인을 양성 교육하기 위한 학교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례의 제11조는 종교건물의 신축, 철거, 이전 등에 관한 내용인데, 종교건물을 신축, 철거, 이전할 때에는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지종교사무기관을 거쳐 성종교사

12) <http://www.sdmw.gov.cn/zcfg/200909/da3a45e6-8060-4fae-81f6-72b7a42cfdff.htm>

13) 2000년의 내용은 『大陸宗教概況(1996年-2001年)』에서, 그리고 2004년의 내용은 위 사이트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무기관의 심사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새롭게 달라진 것은 종교 활동장소의 범위 밖에서 새로운 종교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때 관련국가규정을 따르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 조항에는 이것이 없었지만, 새롭게 부가된 것으로 보아서 종교 활동장소가 난립할 것을 우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규제를 하려함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와 관련된 조항이 제14조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종교 소유의 건물은 성이나 시의 계획에 따라 건설하고, 철거, 이전하되, 철거이전 주관기관은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마땅히 관련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 관리조직과 종교사무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종교소유의 건물은 함부로 지어져서는 안 되며 성이나 시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18조의 내용인데, 종교 활동장소, 또는 종교학교 내에서 상업, 서비스네트워크 전람회 등의 활동, 그리고 영화나 TV드라마의 촬영 등의 활동은 종교 사무부서의 동의를 얻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새로운 제18조에는 종교학교가 누락되어 종교학교에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제17조의 내용도 부분적으로 변경되었지만, 허가에 관한 내용이라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 2. 산동성의 종교현황

산동성에는 현재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와 기독교(개신교) 등의 5가지 종교가 있다. 불교와 도교는 모두 천년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슬람교는 주로 13세기부터 회족 무슬림의 이주경로를 따라 번성하고 발전했다. 천주교와 기독교(개신교)는 19세기 중엽의 아편전쟁 이후에 비교적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었다. 1940년대 말, 산동성의 종교인 숫자는 약 60만 명이였다.<sup>14)</sup>

그러나 공산화 이후 중국전역과 마찬가지로 산동성에서도 종교 활동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게 되고, 문화혁명기간을 거치면서는 그나마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던 산동성의 종교가 완전히 말살되다시피 하여 그 자취를 찾기가 어려웠다. 1978년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정부는 종교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또한 당장 종교가 소멸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소멸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종교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14) 山東省地方史志編纂委員會, 『山東省志—宗教志』, 山東人民出版社, 濟南(1998), 299쪽.

산둥성지(山東省誌)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산둥성의 천주교, 기독교계에서 반제 애국운동과 삼자애국운동이 일어나 교회내의 제국주의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였고, 불교, 도교와 이슬람교는 종교의 봉건적 특권과 억압적 착취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각 종교들은 잇따라 애국조직을 만들고, 인민정부에 협조하여 종교 신앙 자유정책이 실행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한다.<sup>15)</sup>

이것은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고 대개는 공산중국의 건립이후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친정부 종교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한편 친정부조직을 만들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이런 종류의 조직이 비록 민간단체의 형태로 설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전기관 및 종교사무기관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애국종교조직의 임무는 중앙공산당 및 정부기관의 종교정책을 협력 집행하고, 민간 종교 활동이 ‘합법’인지 아닌지를 감독하는 것이다. 중국에서의 종교 활동 및 중국의 종교단체는 모두 ‘애국종교조직’의 인가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즉 ‘탈법’을 행한 것이 인정되면, 공안기관은 관련규정에 의해 단속 처벌할 수 있다.<sup>16)</sup>

현재 대륙의 전국적인 ‘애국종교조직’은 7개가 있다. 각각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교협회’, ‘중국천주교애국회’, ‘중국천주교주교단’,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중국기독교협회’ 등이다.<sup>17)</sup> 이러한 조직은 각 성급 및 그 하위의 단위에도 조직되어 있다. 산둥성에는 ‘불교협회’, ‘도교협회’, ‘이슬람교협회’, ‘천주교애국회’, ‘천주교교무위원회’, ‘천주교교구’, ‘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기독교협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와 마찬가지로 종교는 불교·도교·이슬람교·천주교(공교)·기독교(개신교)의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sup>18)</sup>

1946년 국민당정부가 산둥성을 관리하고 있을 당시 불교도의 숫자는 6개의 종파에 대략 7만여 명 전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1948년에서 1950년대 초에 각 종파는 모두 해산되었고, 따라서 그 종파들의 활동도 정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정부적 종교인들의 종교 활동은 그러저럭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1965년 산둥성에는 152개소의 사찰과 463명의 승려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마

15) 山東省地方史志編纂委員會, 같은 책.

16) 行政院大陸委員會編印, 같은 책, 6쪽.

17) 『大陸宗教政策』, 『大陸宗教現況簡介』, 行政院大陸委員會, 臺北, 民國85年(1996)10月, 15쪽. 行政院大陸委員會編印, 같은 책에서 재인용.

18) <http://www.sdmw.gov.cn/zcfg/200909/da3a45e6-8060-4fae-81f6-72b7a42cfdff.htm>, 《산둥성종교사무조례》제 37조.

저도 문화대혁명기간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그간 중단되었던 불교의 활동이 재개되었다. 1987년 12월 지난에서 불교대표회의가 열려서 산동성 불교협회가 조직되었다. 1990년 산동성에서 개방된 사찰은 9개소이고 70인의 승려와 수천 명의 거사가 있었다.<sup>19)</sup>

천주교는 16세기부터 부분적으로 전래되다가 17세기 들어 정식으로 산동지역에 들어왔는데, 주로 예수회나 방지거회 같은 선교 및 수도단체들이 중심이었다. 1696년 중국에는 12개 교구가 있었는데, 산동지방은 북경대목구 소속이었다. 1839년에 산동대목구가 설립되었고, 이후 산동지역은 비록 대목구나 지목구의 형태들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교구들이 분할되었다. 1946년 4월 당시 산동지역에 있던 8개의 대목구들이 모두 교구로 승격되어 정식 교계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로마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중국천주교는 독자적 길을 걷게 된다. 1949년 통계에 따르면, 산동성의 성당 및 강당이 모두 974곳이었으며, 사제 433명(중국인 147명), 수사 55명(중국인 32명), 수녀 636명(중국인 361명)이었고, 신자 수는 약 32만 4천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sup>20)</sup>

1957년 친정부인사들을 중심으로 ‘산동성천주교교우애국회’(1964년 ‘산동성천주교애국회’로 명칭 변경)가 조직되어 사실상의 종교자유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종교의 명맥은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1958년 산동성의 교구는 9개 그리고 감목구가 2개가 있었다. 1960년대 통계로 천주교 성당이 114곳(1964년), 사제 54명(1961년), 수사 10명, 수녀 134명(1961년), 신자 수 13만 명(1966년) 등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불교와 마찬가지로 천주교도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종교 활동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개혁개방 이후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천주교의 활동이 다시 되살아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외국, 특히 로마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애국종교조직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었고, 이에 속하지 않고 로마와 연결되거나 독자적인 종교 활동은 철저히 금지되었다. 1987년에는 ‘산동성 천주교교무위원회’가 조직되어 기존의 ‘산동성 천주교애국회’, 그리고 산동성의 각 교구와 함께 사실상 산동성의 천주교를 이끌고 있다.

1983년 개방이후 산동성에는 13개 성당이 개방되고, 47곳의 활동장소가 있었지만, 1990년 11개 교구에 90개의 성당이 있고, 활동 장소가 107곳에 달하게 되었다.

19) 山東省地方史志編纂委員會, 같은 책, 323-325쪽.

20) 같은 책, 559-576쪽.

또한 6명의 주교, 34명의 사제, 25명의 수사, 60명의 수녀가 활동을 하였으며, 신자 수는 15만여 명이라고 한다.<sup>21)</sup>

개신교는 1830년대 산동성에 전래되지만, 아편전쟁 이전까지는 산발적인 선교활동에 그쳤다. 그러나 아편 전쟁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맺은 1858년의 텐진 조약(天津條約)과 1860년의 베이징조약(北京條約)으로 인해 서구의 선교사들은 중국에서의 종교자유와 종교재산의 종교단체 소유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선교사들이 대거 산동성으로 들어와 선교활동을 펼치면서 서양 선교사들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 선교사들의 세력 확장은 중국인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여기에 종교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는 기독교를 서구 세력과 동일하게 보고 적대적으로 하는 행위였다.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는 중국에 민족주의 사상이 고조되고 반제국주의 운동이 펼쳐지고 있었다. 중국인들의 일부는 기독교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선봉과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여겨 기독교에 적대적인 행위를 취하였다. 그 결과 1900년 반기독교운동의 절정인 의화단 사건이 산동에서 발생하였다.

이와는 다른 또 하나의 대응 방식은 자립 중국교회의 탄생이었다. 비록 초기에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기독교를 전해주었지만, 1885년 이후부터는 중국인들의 기독교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 첫 모습이 1885년 결성된 ‘산동수은포도회(山東酬恩布道會)’였는데, 이 선교회는 외국 선교사가 아니라 중국인들 40여명이 모여 설립한 것이었다. 이후 중국인 자치교회들이 속속 생겨서 1920년대 말에 되면 산동지역에 10여개 이상의 자치교회가 생겨난다. 1928년에는 중화기독교회산동대회가 지난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무렵 산동성에서 중화기독교소속으로 한국인이 담당하는 구회(노회)도 결성되었다. 이 구회의 운영주체는 조선예수교장로회에서 파견된 한국인 선교사들이었고, 라이양(萊陽)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것이었다. 1942년 산동성에는 271개의 교회가 있었으며, 신도수는 5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sup>22)</sup>

1950년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개신교에서는 친정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소위 삼자애국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중국정부는 기독교의 모든 교파를 인

21) 같은 책.

22) 같은 책, 625쪽. 다른 노회의 통계는 나와 있지만, 칭다오분회의 통계가 누락되었고, 소규모의 자립 중화기독교회들이 누락되어 실제 숫자는 이보다 많다고 보아야 한다.

정하지 않고 오로지 단 하나의 기독교만을 인정하는 정책을 취하게 된다. 1954년 전국 기독교단체인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가 성립되었으며, 뒤이어 지난, 칭다오, 옌타이(烟台)등이 각각 ‘삼자애국운동위원회’를 설립하게 된다. 1958년 8월 지난에서 개최된 산둥성 기독교대표회의에서 ‘산둥성 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이후 삼자위원회)’가 설립되어 오늘에 이른다. 그리고 개방 이후인 1981년 3월에는 ‘산둥성 기독교협회’가 설립되어 앞의 ‘삼자위원회’와 함께 산둥성의 기독교를 담당하고 있다. 산둥성지에 나온 산둥성 기독교신자 분포표를 보면,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1990년 산둥성의 기독교 총신자수가 대략 31만여 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23)</sup>

산둥성에는 이상에서 언급한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의 조직들 이외에 도교협회와 이슬람교협회가 있어 각각의 종교를 관할하고 있다.

### Ⅲ. 산둥성의 한국종교

#### 1. 산둥성 한국종교의 역사

역사적으로 산둥성은 한반도와의 교류의 중심에 있었다. 삼국시대 신라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551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당나라 시기에는 신라와 중국의 관계가 한층 밀접히 연결되어 정치·군사적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시기 신라인들은 당나라에 유학하였는데, 특히 불교의 승려도 중국에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많이 유학하였다. 이들은 유학 후 다시 귀국하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중국에 머물며 중국불교계에서 많이 활동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의 기독교가 산둥성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만주 지역에는 이미 1882년부터 한국의 개신교 신자들이 활동을 하였지만, 그것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선교활동이었으며, 한국과 거의 동시에 개신교가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따라

23) 위의 책, 648쪽. 그러나 또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8년 중국전체의 기독교인 총수가 2천만여 명이며, 2005년 상해의 기독교인이 18만여 명, 그리고 2008년 북경의 기독교인이 약 5만여 명이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1990년대의 통계이고 다른 지역들과 중국 전체와 비교해볼 때 통계가 불안정하다고 생각된다. 段 琦, 唐曉峰, 『2008年中國基督教現狀及研究』, 『中國宗教報告(2009)』, 主編, 金 澤, 邱永輝,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9), 135쪽.

서 이것은 사실상 한국의 개신교가 해외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였다기보다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둥성에서의 선교는 이것과는 다른 형태였다. 한국에 진출한 장로교단은 1907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독노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형태의 총회로 승격하지 못하였음에도 해외선교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1912년 황해도 노회가 중국 선교안을 제기하자 그해 가을 총회에서 노회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로 승격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13년 5월 첫 선교사로 박태로 목사를 선임하여 산둥성으로 파송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사병순·김영훈 목사가 산둥성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초창기부터 산둥성에는 목사 8명에 여선교사 1명이 선교를 위해 파송되었다.<sup>24)</sup>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들이 선교지로 삼은 곳은 산둥의 라이양 지역이었는데, 이는 미국북장로교 선교부·중국교회·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논의하여 할양받게 된 지역이었다.<sup>25)</sup> 그러나 타국에서의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박태로 선교사는 질병을 얻어 결국 1918년 사망하였고, 나머지 선교사들도 1917년 철수하여 잠시 공백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920년대 새로운 선교사를 파견하면서 다시금 중국선교가 활성화되었다.

중국선교가 활기를 띠면서 1932년 한국선교사들이 관할하는 라이양 지역에 “라이양노회”가 설립되어 중국 16개 노회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라이양노회는 전란으로 다시 폐지되고, 1938년 칭다오 선교구가 신설되었다. 한국선교사들의 선교노력 결과 1942년에는 교회 수 35개, 세례교인 1,716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sup>26)</sup> 그러나 1945년 이후 공산 정권이 중국 대륙을 장악함에 따라 중국에 남아있던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추방되었고, 산둥성에서의 한국 선교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공산화 이후 종교 활동에 커다란 제약 속에 있었던 중국에 다시 종교의 자유가 나타난 것은 개혁개방 이후의 일이다. 이와 함께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산둥성에는 과거처럼 다시금 한국인들이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한국인들이 산둥지역

24) <김교철 목사의 한국교회 해외선교행전(32)-중화민국 산둥 선교사 김영훈 목사>, 《인천기독교신문》, 2009년 4월 19일.

25) 최재건, 같은 글, 222쪽.

26) 같은 글, 234쪽.

으로 가게 된 주된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었다. 저임금의 중국 노동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외국으로의 연결이 용이한 칭다오, 웨이하이, 옌타이 지역이 한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다.

한국인들이 산둥성에 거주하게 되면서 한국의 종교도 함께 산둥성에 진출하였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던 해에 칭다오에 있던 한국인 개신교 신자들이 모여 칭다오한인교회를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담임 목사가 없이 신자들끼리의 공동체로 지내다가 1990년대 말에 가서야 담임 목사가 교회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지리적 인 문제와 신자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2002년 황도한인교회, 2003년 청양한인교회, 2006년 천태울림교회 등이 창립되었다. 그 후에도 칭다오한인교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현재 칭다오뿐만 아니라 산둥성 전체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의 하나가 되었다. 웨이하이에 있는 웨이하이한인교회도 1994년 신도들이 모여 예배를 보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1996년 웨이하이시 종교국으로부터 정식 한인교회로 인준을 받으면서 웨이하이의 중심적 한인교회가 되었다. 옌타이에 있는 산둥한인교회는 1999년 설립되었는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선교사들이 파견되어 설립한 교회이다. 이들 세 교회는 각각의 지역에서 대표적 교회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교회들 외에도 계속해서 교회들이 설립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07년에 출범한 공동체도 있지만, 이런 교회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한 외부로 드러낼 수도 없는 위치에 있기에 소규모 공동체로 활동하고 있다.

천주교는 1994년 한인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한인 교우회를 창립하고 칭다오 주교좌성당에서 함께 미사에 참석하면서 시작되었다. 1995년 말부터는 수원교구에서 월 1회 사제를 파견하여 미사와 세례 등의 의례를 주관하며 지내게 되었다. 1997년 10월 대구교구 소속 사제가 본당 신부로 부임하면서 대구교구 소속 칭다오 한인 본당이 되어 산둥성 최초의 한인본당이 되었다. 1998년부터는 칭다오 주교좌성당에서 한국인 신자들만의 미사를 드리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옌타이, 웨이하이, 칭다오의 청양(城陽)에 공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2005년 옌타이, 웨이하이, 칭다오의 청양에 새로운 한인본당이 설립되었으며, 웨이하이와 청양은 대구교구, 옌타이는 인천교구 소속의 사제들이 파견되어 한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목활동을 하고 있다.

불교의 경우 불교 신자들의 모임은 비교적 초창기부터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인 대상의 사찰이 생겨났는데, 칭다오가 중심이 되었다. 대구 관음사의 자

매 사찰인 칭다오 관음사가 2006년 칭다오시의 허가를 받아 출범하면서 공식적인 한국 사찰이 되었으며, 한국인 승려가 대구 관음사에서 파견되어 칭다오 지역 한국인 불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다. 웨이하이에도 2002년부터 불교 신자들의 모임이 생겨나, 법당 등을 마련하여 신자들끼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승려는 없다.

## 2. 산동성 한국종교의 현황

현재 산동성에 있는 한국의 종교는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불교 등이다. 이 가운데 개신교의 활동이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한인 교회의 숫자도 50여개 전후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반 이상이 칭다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웨이하이와 옌타이 등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의 숫자에 비례해서 교회의 숫자도 나타나고 있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칭다오시에 하나, 그리고 칭다오시의 청양구에 하나, 웨이하이, 옌타이 등 모두 4곳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 불교의 경우는 칭다오에 대구의 관음사(대한불교조계종 소속)에서 지원을 받아 설립한 칭다오 관음사를 비롯해서 웨이하이와 옌타이를 포함 모두 5곳 정도의 불교 모임이 있다.

개신교의 신자 수는 면담했던 교역자<sup>27)</sup>의 답변이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한데 예를 들어 칭다오의 경우는 전체 한국인의 약 5% 정도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웨이하이나 옌타이의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많아서 6~8% 정도로 보고 있다. 이러한 추정을 근거로 한다면 산동지역 한국인 전체의 약 5~6% 정도가 교회에 출석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산동성의 한국인의 숫자를 대략 11만~12만 명 정도로 추산해 본다면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7천여 명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는 칭다오의 경우 필자가 실제 주일미사에 참석해 본 결과 주일미사에 참석한 인원수가 250여 명 전후인 것으로 보였다. 국내에서의 천주교 신자의 주일미사 참석율과, 중국 지역의 특성상 지리적으로 주일미사에 참석하기가 곤란한 경우들을 종합해 본다면 아마도 칭다오의 경우 최소한 800여 명 이상의 천주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산동성 전체로 확대해서 본다면 아마도 산동성 전체

27) 본 논문에서는 면담 대상자의 신원과 대상일시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을 것이다. 면담자의 신원이 본 논문을 통해 밝혀질 경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로는 4,000여 명 전후의 한국인 천주교 신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 실제로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각각의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 활동은 점차 발전해나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것은 개신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불교의 경우는 이러한 추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추정치라고 하더라도 산동성에 거주하는 한국인 가운데 불교인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 가는 말하기 어렵다. 다만 사찰을 찾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찰이 있는 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불교신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사찰에 따라서는 한국인 승려가 있는 곳이 있고, 또 아예 없는 곳도 있으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는 승려도 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가운데 불교의 활동이 가장 침체되어 있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칭다오와 옌타이, 웨이하이의 3지역에 주로 종교 교당<sup>28)</sup>들이 있지만, 근래에는 웨이팡(濰坊) 등에도 한국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2~3개의 교회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신교의 교회나 교인들의 숫자가 그저 추정외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몇몇 교회를 제외하면 드러나지 않는 종교 활동들이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활동하는 경우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일일이 신고하기가 어려워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칭다오나 웨이하이, 옌타이와 같이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목사들이 서로 교류활동을 하지만, 모두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모임에 나온다고 한다. 필자가 만나본

28) 중국에서의 교회, 또는 교당은 한국에서의 개념과는 다르다. 중국의 교회라는 장소는 한국과 달리 종교적 활동 모임을 갖겠다는 신고와 허가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곳의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 교회로 삼거나 또는 건물을 사거나 임대해서 교회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시나 성의 종교사무국에 어느 지역에서 종교적 모임(예배, 또는 미사 등)을 갖겠다고 신고하고 또 종교사무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그 이후부터 합법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임의 장소는 유동적일 수 있다. 어느 한 곳을 임대해서(중국의 법제상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임대기간이 끝나고 임대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모임의 장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처럼 고정된 장소의 교당을 생각할 수는 없다. 물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도 있지만, 일부는 호텔 등을 매주 빌려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라던가 장소의 적합성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교회, 또는 교당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것은 국내적 개념이고, 중국 현지의 개념으로 본다면, 종교적 모임을 임시로 허가 받은 장소, 그리고 종교적 모임을 할 수 있는 허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올바른 개념이다. 그것도 항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체로 일요일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은 불교보다는 천주교, 천주교보다는 개신교의 경우가 사정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 교회의 목사는 종교 활동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중국의 법으로 본다면 자신들의 모임 자체도 불법일 수 있기 때문에 목사들의 모임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목사들 자신도 모임에 소극적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아마도 이들의 모임을 통해 종교 활동의 모든 것이 중국에 노출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교파를 초월해서, 다시 말해서 특정교단 소속임을 나타내지 않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교회일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칭다오한인교회가 그 대표적 그 사례의 하나인데, 이 교회는 현재 특정 교파를 구분하지 않는 연합 교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당국이 개신교의 교파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천주교와 대비되는 기독교로서 하나만을 인정하기 때문이지만, 이 지역 한인 개신교 신자들의 신앙 활동을 담당하는 선교사가 처음부터 이 지역이 국내가 아닌 외국이기에 교파를 구분하지 않고 연합적인 성격의 교회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국내의 특정 교파 예컨대 대한 예수교장로교파와 연결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국 내에서는 교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교파를 알리고 있지는 않다.

예배를 볼 경우 허가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오로지 한국인들만 참석할 수 있고, 중국이나 중국의 조선동포가 참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이런 금지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비록 그것이 실수나 우연이었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활동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회 앞에 중국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 표지를 붙여놓기도 하고, 큰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 앞에 종교사무국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중국인들의 출입을 감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개신교는 가정예배의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건물을 임대해 교회로 사용하고 있기에 평일에도 교인들과의 교류는 이어지고 있다.

산둥성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거의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우선 이들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중국의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선교사들의 활동이 직접 선교보다는 간접선교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류 붐을 이용한 한국어 강습이나 직업교육 등과 같이 사회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종교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일이 발각되더라도 하면 즉각 추방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본인이 스스로 선교사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와의 교류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 현지 목사들도 이들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다. 따라서 이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산동성만의 경우는 아니고 중국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천주교의 종교 활동은 주로 현지의 성당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성당이 있는 다른 지역들 예컨대 헤이룽장성이나 랴오닝성, 지린성 등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성당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요일 미사시간에 한해서 사용하며 그 이외의 평일에는 신자들이 모여 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부분적으로 호텔 등을 이용해서 세례식 등의 의례를 행하고 있다.

한편 산동성에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함에 따라 동북삼성에서 살던 많은 조선동포들이 산동성으로 이주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한국인보다도 많은 조선족들이 산동성에 거주하게 되었다. 조선족들은 산동성에 거주하면서 그들만의 종교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현재는 칭다오시에 10여 곳의 조선족 교회가 한족교회와 별도로 성립되었으며, 이는 엔타이와 웨이하이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산동성 전체로 본다면 조선족들의 개신교 공동체는 대략 2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한족 교회나 한국 교회와 교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목회자들끼리의 개인적인 친분 교류는 이어지고 있다. 불교공동체의 모임은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을 이끌 성직자의 부재가 기본적 원인으로 생각된다.

현재 산동성의 한국종교는 개신교의 교회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 종교인의 숫자에서도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천주교의 본당이 4곳이 있어 한국천주교에서 파견된 사제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다. 한국의 불교는 주로 칭다오에 있으며 한국과 달리 개신교나 천주교에 비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것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중국의 다른 지역에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산동성은 다른 지역과 달리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10년 산동성의 한국인은 대략 11-12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

다.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산동성에 거주하던 한국인의 30퍼센트 이상이 근래 산동성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칭다오가 6만여 명, 옌타이 3만여 명, 그리고 웨이하이 2만여 명,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1만여 명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동성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있지만, 이주한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한 경제적인 수준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sup>29)</sup>

이런 모습은 종교공동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종교인들의 모임에서도 차별성이 보이고 여기서 소외되어 종교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즉, 종교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경제적 신분의 차이가 그대로 나타나 이들 간에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가 형성되어 서로 교류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를 중심으로 한 산동성 지역에 이주한 거의 모든 한국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국적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지만, 생활권은 한국이 아닌 중국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한국인끼리의 신분상의 서열화가 이 지역에 나타나고 있으며, 종교공동체에서 그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다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산동성에 있는 한인 종교 공동체는 거의가 중국의 종교관련 법률을 어기지 않으려 주의하고 있다. 그것은 특히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개신교의 경우는 일부 조선동포 목사와 개인적 친분관계는 갖지만, 교회끼리 직접 교류한다거나 조선동포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비롯한 어떠한 종교적 접근도 하지 않고 있다. 현지 선교 목적으로 와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은 직업교육이나 한국어 교육과 같은 사회사업을 주로 하면서 가급적 직접적인 선교는 자제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천주교는 대체로 중국 천주교의 협조를 얻어 중국인 성당을 이용하여 미사를 드리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 천주교는 물론 중국 정부의 공식적 승인을 받은 천주교애국회 소속을 말한다. 중국 천주교와의 교섭은 한국의 천주교 소속 각 교구가 담당하고 있다. 본당 신부의 사목활동을 돕기 위해 한국인 수녀도 파견되어 있지만, 국내와 달리 중국의 관련법 때문에 수도복을 착용하지는 못한다.

불교의 경우는 잠재적 신도가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칭다오를 제외하면 사실상

29) 이것은 현지의 한 교회 목사의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하였다. 이후의 내용은 그와의 면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 불교계에서 이곳의 불교 신도를 위해 승려를 파견하는 일에는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불교 신도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승려를 파견해 주도록 요청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조건과 같은 이유로 인해 직접적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의 종교인구 가운데 불교신도수가 거의 반에 육박한다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산동성에는 많은 잠재적 한국인 불교신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불교계가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불교를 비롯한 한국의 신종교들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불교·개신교·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종교 조례가 “종교는 도교·불교·이슬람교·천주교·개신교(기독교) 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중국 종교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들 종교의 중국에서의 활동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 IV. 나가는 말

산동성은 중국의 대표적인 대외경제교류지역이다. 상하이나 톈진 등의 일부 대도시들을 제외한다면 중국에서 대외교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산동성일 것이다. 특히 외국인들의 진출입이 활발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외국인과의 교류에 있어 이제까지 해오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종교의 입장에서 큰 관심사라 아니할 수 없다. 비록 외국 종교 세력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등한 종교교류, 학술교류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부터의 변화는 어느 정도 감지될 수 있다. 물론 당장 가시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평등한 입장에서 교류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인 교류는 중국의 종교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직접 면담을 하면서 필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 몇 가지를 서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중국의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선교에 관한 산동성에서 한국의 개신교는 다른 어느 종교보다 앞장 서 있다. 국내와 달리 오로지 중국인, 조선동포, 한국인을 구별해서 선교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제외한다면, 아직도 이 지역에서 개신교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 대단히 민감하

게 여기는 중국 당국과의 마찰을 피한다면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지나치게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 교회나 조선족 교회와의 교섭을 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종교사무 조례에도 분명 중국 종교가 외국의 종교와 교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한국교회가 서구교회와는 달리 독자성을 가지고 중국교회와 교류할 것이며, 중국인에게 직접 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점만 분명히 보여준다는 전제하에서 교회끼리의 동등한 교류를 위한 길을 모색하면 풀릴 문제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천주교는 중국 천주교와의 협력을 통해 산동성 내 한국인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일부 선교사들이 중국인에 대해 직접적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발미가 되어 자칫 그간 한국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파견되어 있던 한국인 성직자들의 위치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고 중국 천주교와의 동등한 교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중국에서 아직까지 종교적 목적을 위한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지적을 받는다면 언제라도 종교인은 그 지역에서 추방될 수 있는 것이다.

불교의 경우는 개신교, 천주교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국 정부가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필자가 2010년 2월에 산동지역을 방문했을 때 불과 몇 개월 전에 방문했을 때에는 있었던 교회의 간판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 이유는 시정부가 간판을 철거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불교는 크게 간판을 걸어놓았고, 신분확인 절차도 교회처럼 엄격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불교에 대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이유는 아직도 기독교의 뒤에는 서구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불교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산동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http://www.inbora.com>

<http://www.kidok.net/>

<http://www.sara.gov.cn/gb/zcfg/gz/default.htm>

<http://www.sdmw.gov.cn/zcfg/200909/da3a45e6-8060-4fae-81f6-72b7a42cfdff.htm>

<http://www.sdmw.gov.cn/zcfg/200909/58e3b470-1fb5-45e8-b794-1c1dafd4afe7.htm>

<http://www.sdmw.gov.cn/zcfg/200909/da3a45e6-8060-4fae-81f6-72b7a42cfdff.htm>

<http://www.sdmw.gov.cn/zcfg/200909/da3a45e6-8060-4fae-81f6-72b7a42cfdff.htm>

『山東省地圖冊』(山東省地圖出版社, 2010).

『大陸宗教政策』, 『大陸宗教現況簡介』, 臺北, 行政院大陸委員會, 民國85年10月.

山東省地方史志編纂委員會, 『山東省志—宗教志』, (濟南: 山東人民出版社, 1998).

行政院大陸委員會編印, 『大陸宗教概況(1996年—2001年)』, 行政院大陸委員會. 臺北, 民國 91(2002).

段 琦, 唐曉峰, 『2008年中國基督教現狀及研究』, 『中國宗教報告(2009)』, 主編, 金 澤, 邱永輝,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9).

《인천기독교신문》

강준영, 『중국 개혁개방과 종교의 부활』, 『중국학연구』24집, 중국학연구회(2003).

우정하, 『중국 각 성(省)에 대한 연구분석(6)』, 『중국학논총』25집, 국민대학교 중국 문제연구소(2009).

차차석, 『불교사학 및 응용불교: 현대 중국 종교정책의 변화과정과 전망』, 『한국불교학』47집, 한국불교학회(2007).

최재건, 『한국 장로교회의 중국 산동성 선교』, 『한국교회사학회지』18집, 한국교회사학회(2006).

## The Korean Religions in Shandong Sheng(山東省) of China

Yoon, Yong-Bok

After amity of Korea and China many Koreans have emigrated to China, especially Shandong Sheng. Geographically Shandong Sheng of China is an advantageous region for Koreans and for the open policy of China. Shandong Sheng is recognized as gateway for foreign opening in China. Because of these external causes the most of Koreans in China have lived in Shandong Sheng.

In modern ages, Korean Protestantism has done the overseas missionary work in Shandong Sheng for the first time. After China had become Communist China, this missionary work has ceased. Since the reform and the opening of China, Koreans have immigrated into Shandong Sheng, and Korean religions have been branched in Shandong She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Korean religions in Shandong Sheng and to deal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m. There are Korean Protestantism, Korean Catholicism, and Korean Buddhism in Shandong Sheng at present. Because of the Chinese laws about religion few Korean New Religions are there. Only Daoism, Buddhism, Islam,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are recognized as religions in China. Besides the denominations of Protestantism aren't allowed in China. Therefore there is no denominations in China, as there are the Presbyterian Church, Methodist Church, and Evangelical Holiness Church and so on in Korea.

Among those three religions, Protestantism is a most active religion. There are Catholic communities in Qingdao, Weihai, Yantai. A few Buddhist Temples are In Qingdao, but Buddhism isn't active in Weihai and Yantai. I hope that Korean Buddhists will pay attention to the missionary work about Koreans in Shandong Sheng.

Key Words: Shandong Sheng(山東省), Korean Protestantism, Korean Catholicism, Korean Buddhism, Denomination, Missionary Work

필자 E-mail: drayoon@paran.com (윤용복)

투고일: 2010년 7월 25일/ 심사완료일: 2010년 8월 18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0일